

이 음 한 코

# 한 코 한 코 뜨개질하듯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 되다

글. 사진. 신지영(이음한코 회원)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에서 만난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 '이음한코'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음한코는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듯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하나 모임을 완성해 간다는 의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임은 평범한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부들 모임이 늘 그렇듯, 만나면 주된 관심사가 아이들이다. 오가는 이야기도 전부 아이들 학원 이야기, 학교 이야기,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관리를 잘해 주신다 등등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각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임에도 말이다.

예를 들면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 퀼트(Quilt)를 잘하는 사람, 마크라메(Macramé, 서양식 매듭 공예)를 잘하는 사람,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를 잘해 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주부로만 지내기에는 아까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친목만을 다지는 모임이 아닌, 각자의 재능을 나눠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음한코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 코 한 코 늘어나듯 3명이 시작한 모임이 현재는 8명이 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작년 한 해였지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에 전시도 하는 등 많은 경험과 수확이 있었다. 우리는 이음한코 모임을 통해 소소한 결과물을 보며 작지만, 큰 행복과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음한코 모임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후 곡 엘 지 룯 데 테 니 스 회

# 재능을 나누고 마을주민과 소통해요

글. 사진. 한수정(일산3동 꿈활동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살아도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나의 경우엔 아파트 이웃이 그렇다. 평소 안면이라도 있다면 쉽게 해결될 일들도 법정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요즘, 재능 나눔으로 주민과 소통하려는 공동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후곡엘지롯데테니스 공동체'는 현재 70여 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곡마을 9단지 기점으로 인근 주민들이 모여 만든 테니스 공동체이다. 최근 심심찮게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 소식이 들려온다. 대부분 공유공간을 운용하는 공동체와 입주인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후곡엘지롯데테니스회는 몇 해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단지 내 청소년을 위한 무료강습을 매주 열었으며, 함께 참여한 부모들의 요청으로 성인을 위한 강습도 함께 추진하는 등 현재 단지 내 테니스장은 분쟁의 중심이 아닌,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되는 중이다.

작년에는 입주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기획하여 고양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뿌리기)과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공동체 대표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후곡엘지롯데테니스회의 개방적 운용, 적극적 홍보활동,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증가는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간극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올해도 후곡엘지롯데테니스회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들의 의미 있는 마을살이를 성원한다.

마 마 파 티

# 육아가 즐거운 파티가 되는 순간! '마마파티'

글. 사진. 이보경(마마파티 회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육아문제는 개인만의 책임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마마파티'의 출발점이 되었다. 육아의 주체를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대하여 고민은 덜고 즐거움은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마마파티가 처음 기획한 이벤트는 '백일·돌상 공유'였다. 육아에 지친 엄마가 기념일까지 직접 준비하려면 스트레스도 받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공동체 엄마들이 모여 버블퐁선 같은 소품은 직접 만들고, 그 외 물품은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육아'라는 공통화제가 있는 만큼, 엄마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풍선을 만들고 정보도 공유했다. 다들 코로나19와 육아의 이중고로 지친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직접 만든 소품과 공동구매한 소품으로 백일·돌상을 꾸미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다. 만약 혼자 준비했다면 소품은 일회 사용 후 버려졌을 것이고, 시간소비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마파티 회원들만 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마을의 다른 엄마들에게도 패키지를 무료 대여했다.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폭발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일·돌잔치를 취소한 엄마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올해도 마마파티는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지원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강의를 기획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오늘도 마마파티는 혼자 하는 '육아전쟁'이 아닌, 함께하는 '육아파티'를 꿈꾼다.

살 구 다 방

# 책, 이야기, 추억을 나누는 살구다방

글. 사진. 김수현(살구다방 회원)



살구나무가 많은 후곡마을 9단지. 그래서 살구꽃 피고 지는 정취를 자세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학생들은 학교·학원 생활로 인해 이런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들의 마음도 아이들의 일정만큼이나 여유가 없다.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 단지에서 보낸 유년시절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무가 예쁜 등갯길과 공원길에서 자연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이웃과 함께 하는 기억, 소소한 웃음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은 부재한 것이 아닐까? 노릇하게 부쳐낸 전 한 장 건네며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사소한 일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옛 시절 골목길에서의 정다운 기억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을 테지. '살구다방'은 이런 생각을 한 엄마아빠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우연히 한 아이 아빠의 눈에 띈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몇몇 이웃들의 응원에 힘입어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다. 함께하고 싶은 일들은 가득한데 대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 나누자!"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잘 안 쓰는 책이나 물건도 나누고, 텃밭도 나누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작은 벼룩시장 같은 행사도 나누어보자. 그러다 보면 추억도, 함께 한 이야기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질 것 같다.

관리사무소 1층의 작은 공간에 '살구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책나눔이 시작되었다. 몇 번을 가도 어색하고 낯설던 그 공간에 이웃들의 집에 잠자고 있던 책들이 모이고 있다. 꾸뻑꾸뻑하던 아이들이 이내 책 한 권을 집어 들어 앞에 놓인 의자와 단지 내 벤치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도 책은 많지만, 우리 이웃들이 읽고 나누고자 나온 책이라 생각하니 왠지 정답다.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도 없고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 읽고 내가 나누고 싶은 책도 가져다 놓으면 된다. 바쁜 일상 속에 경직되어 있던 마음도 조금은 말랑해지는 기분이다.

이렇게 책나눔으로 시작된 살구다방은 봄에는 채소나눔과 이야기나눔(이웃탐방), 여름에는 물건나눔, 가을에는 추억나눔(단지 내 가족사진 촬영)으로 활동을 이어가 볼 계획이다. 봄부터 뿌려지는 소소한 나눔들이 가을 즈음에는 화합이라는 알찬 결실로 돌아오지 않을까. 콘크리트 건물과 주차된 빼곡한 자동차들, 무심히 오가던 승강기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자리를 비우고 따뜻한 웃음이 번져나가길 기대해본다. ☺

